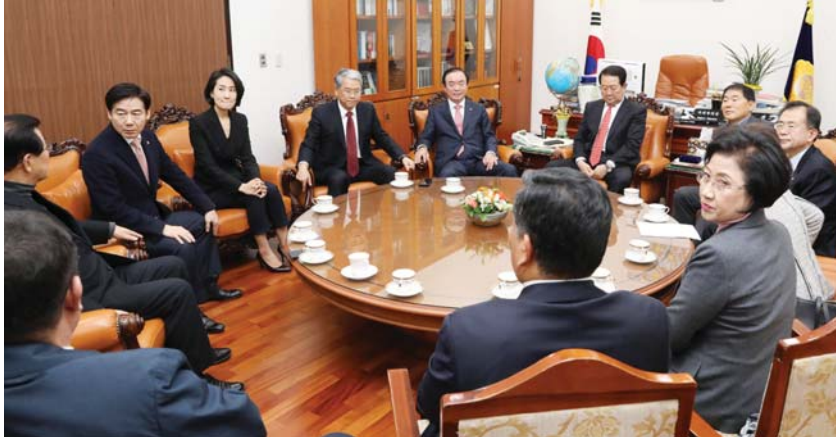


# 국민의당, 통합 관련 오늘 '난상토론' 개최

### 의원총회 갖고 입장 공유...당 향방 결론 계획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주선 국회 부의장 등 중립파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부의장실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부의장, 이용호 정책위의장, 장병완, 황주홍, 박준영, 윤영일, 장정숙, 최도자, 김중희, 김경진, 김수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20일 오전 10시 30분에 '난상토론'을 벌인다.

국민의당 박주선 전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 등 통합 중재파 의원들과 장정숙·최도자 의원 등 일부 초선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현안에 관한 대책 논의에 나섰다.

이날 회동에는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김경진·김수민 원내대변인,

김중희·박준영·윤영일·이용주·장병완·황주홍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크게 이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난상토론'을 벌여 통합에 관한 입장을 공유하고 나아가 당의 방향을 결론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에 찬성하는 소위 '친안계'와 통합에 반대하는 '평화개혁연대'(평개연), 중재파 등이 모여 상시대화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황주홍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

자들끼리 만나 "현 상황이 상호 신뢰 부족으로 증폭된 것"이란 판단도 있어서 상시적 대화체계를 만드는 의견이 일치했다"며 "안 대표 쪽, 평개연 중재파 등에서 몇 명씩 모여 상시적으로 소통이 이뤄지는 긴급 대화체 구성하지는 것이 오늘의 가장 큰 결론"이라고 전했다.

황 의원은 "내일 오전 10시 30분은 난상토론을 벌이는 진지한 의원총회가 열리게 될 것 같다"며 "39명 의원들이 다 개성과 입장, 태도를 갖고 있다. 당이 제대로 가다간 모두가 원하지 않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란 예감 속에서 이것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충정으로 모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황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대화체 구축방안에 동의한 것이라는 질문에는 "오늘 얘기한 부분이 때문에 안 대표 측에도, 평개연 측에도 오늘 얘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회동에 참석한 의원들 간 의견은 없었는지 묻자 그는 "왜 없었나. 조금씩 다르다. 다르지 않다면 이상한 것"이라며 "그 차이를 넘어서 당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고 결속해야 한다는 게 더 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에는 안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도 참석했으나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퇴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시

## 김성태 "임종석, UAE 의혹 밝히라는데 휴가 즐기나"

### "MB정부 때 원전 수주 국정원 1차장 왜 동행했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전 11시에 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보복에 할안이 돼 저지른 외교민행에 대해 의혹을 밝혀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는데 4일 동안 휴가를 즐길 수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 실장의 이람에미리트(UAE) 특사 방문에 대해 많은 언론들이 진실을 밝혀내고 있다"며 "(청와대는 임 실장이) UAE와 레비는 파병부대 격려방문차 갔다고 했지만 MB(이명박) 정부 때 원전 수주와 관련해 많은 정책적 질문을 했던 국가정보원 1차장은 왜 데리고 갔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운영위를 개최해서 임 실장의 UAE 방문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강

도 높은 진상규명을 시작하겠다"며 "정치보복에 할안이 돼 있는 문재인 정권의 참모들이 저지른 민행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상황을 이해하고 직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개헌을 포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개헌 논의를 포기하겠다는 건 문재인 개헌을 하겠다는 그런 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시



이낙연 총리와 대화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낙연 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차담을 하고 있다.

## 이재오 "MB 포토라인 설 가능성 100%無"

### "다스 실소유주, MB 것이라 우기는 것 법률적 무리"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가능성에 대해 "그런 건 100% 없다"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q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이라든지 국정원의 댓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는 관계없고 해당 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로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의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이버사령부 같은 경우 해당 장관이나 비서관도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판인데, 대통령까지 올라오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판 중에 있는데 이거는 볼 건너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언급한 데 대해 "사이버사령부를 만든 것은 국회에서 법률을 위해 만든 것이고 정부 예산을 통해서 운영되는 건데 대통령이 댓글 달아라 어떻게 달았나, 보고해

봐라 이야기를 할 처지가 아니다"라며 "이 전 대통령을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여당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스(DAS)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현재 가장 주(주식)를 많이 가진 사람이 이 전 대통령 관영이다. 주식회사에서 주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그것을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리"라고 반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당 대 당 통합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정당이라는 게 절차가 다 있는 것이고 당의 의견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시

## 홍문표 "홍준표 대표, 재보궐 격전지에 나가주길"

### "주변 시너지 효과...한국당 띄우려면 나와야"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9일 홍준표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당의 책임을 맡은 분이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위해 (재보궐 선거)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사무총장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전날 오후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저희들이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홍 대표)은 아니라고 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약 당대표가 나가면 주변에 시너지 효과도 있고 모든 것

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시너지 효과와 조직의 활성화 등 소위 (선거) 분위기를 한국당으로 띄우려면 (홍 대표가) 나와 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홍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재보궐 지역구에 대해 "나가면 편한 곳으로 가서는 안 되고 격전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노원병과 송파를 지역구의 격전이 예상된

다. 한편 홍 사무총장은 류여해 최고위원의 당무감사 결과 반발에 대해서는 "강남이라는 곳은 상당히 좋은 곳 아니냐"며 "중앙당에서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6가지 품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 건데 점수 미달이 나온 이상 최고위원이라 하더라도 해당되는 분은 공개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토로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방송에 나오는 최고위원이라 해도 다 지구당에 충실하고 조직을 갖춘 것은 아니다"라며 당무감사의 객관성을 강조했다.

뉴스시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